

열정과 실력! 고품격 한국사	一中 한국사 2017 지방직 한국사 해설	정 민 혁
--------------------	------------------------	-------

<총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계
고대 이전	2				2
고대	1	1	1		3
중세		1		1	2
근세·근대	1	2	1	2	6
개항기	1				1
일제강점기	1			1	2
현대사	2			1	3
통합	1				1
계	9	4	2	5	20

1.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스펀지돌개 등이 사용되었다.
- ② 신석기시대 집터는 대부분 움집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 ③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 ④ 청동기시대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비파형동검·붉은간토기·반달돌칼·흙자귀 등이 있다.

정답 ①

문제해설

1. 구석기시대에는 뿔집기가 주로 사용. 수렵, 채집 생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한탄강) 및 공주 석장리 유적.

2. 신석기시대에는 간석기를 주로 사용. 토기가 처음 만들어졌으며, 움집을 이용한 정착생활. 피, 기장, 수수, 조 등의 잡곡 농사 처음 시작.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황해도 봉산 지탑리, 서울 암사동, 강원도 양양 오산리, 부산 영도구 동삼동 패총 등.

3. 청동기시대에는 군장 등의 지배층이 등장. 지배층의 위세를 보여주는 고인돌, 석관묘 등의 대형 무덤이 축조되고 청동제 무기 및 의식용품 등이 사용되었다.

① 스펀지돌개는 몸돌에서 떼어낸 돌날을 다듬어 손잡이에 장착할 수 있게 한 도구. 후기 구석기시대(충북 단양 수양개)에 주로 사용. 스펀지=손잡이, 창 의 기능, 이음도구의 원형. 전기 구석기시대에는 찍개 혹은 주먹도끼와 같은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도구가 사용.

오답해설

②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집터는 대부분 땅을 파서 만들어진 움집, 바닥이 원형 혹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③ 신석기시대에는 강가에서 쉽게 채집할 수 있는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그로 인해 패총 유적들이 다수 발견.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는 조개껍질을 이용한 가면 형태의 장식품이 발견됨. 조개껍데기 가면.

④ 비파형동검을 비롯하여 붉은 간토기, 반달돌칼, 흙자귀 등은 모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으로는 부여 송국리 유적. 송국리에서는 탄화미도 발견됨. □

2. 다음 자료를 쓴 역사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 ① 여유당전서[㉠]를 발간하여 조선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하였다.
- ②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 애국명장의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 ③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하였다.
- ④ '5천 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정답 ②

문제해설

지문은 단재 신채호(1880~1936)의 [㉠]조선상고사의 일부분.

② 신채호는 대표적인 민족주의 계열 역사학자. 민족의식을 위해 을지문덕전, 수군제일위인이순신전, [㉡]동국거걸최도통전(=최영전)□ 등의 민족적 영웅들의 전기를 편찬. 이는 당시 구한말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던 그의 영웅사관을 보여주는 것.

오답해설

① 신민족주의를 주창했던 민세 안재홍(1891~1965), 문일평, 정인보.

③ 사회주의 계열 역사학자였던 백남운(1895~1979)에 대한 설명. 정체성론 반박, 고려를 중세봉건제로 규정.

④ 민족주의 계열 역사학자였던 위당 정인보(1893~1950)에 대한 설명.

3. 군사제도가 실시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중앙	지방
ㄱ	9서당	10정
ㄴ	5위	진관체제
ㄷ	5군영	속오군
ㄹ	2군과 6위	주현군과 주진군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ㄹ → ㄴ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ㄹ → ㄱ → ㄷ

정답 ②

문제해설

ㄱ 9서당/10정은 통일신라, ㄴ 5위/진관체제는 조선 전기, ㄷ 5군영/속오군은 조선 후기, ㄹ 2군6위/주현군, 주진군은 고려 전기의 군사제도.

② ㄱ→ㄹ→ㄴ→ㄷ 순이다.

오답해설

① ③ ④

1. 통일신라 시기에는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등으로 구성된 군단인 9서당을 중앙군으로 민족융합 시도, 각 지방의 교통로 상 요충지에 기병부대로 구성된 10정을 설치.

2. 고려 시기에는 국왕의 친위대 역할을 했던 응양군, 용호군의 2군과 수도 방어 및 궁성 수비 등을 맡았던 좌우위, 감문위 등의 6위로 중앙군 구성. 각 지방의 주, 현 등 행정 중심지 및 군사적 요충지의 수비를 맡은 주현군 및 주진군 설치.

3. 조선 시대에는 선발된 직업군인인 갑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의 5위와 각 지방 요충지에 설치된 방어시설인 진(鎭)의 주둔군이 있었는데, 특히 이러한 각 지방의 자체적인 방어체제를 진관체제라고 함.

4. 조선 중기 이후 군역체계가 붕괴되고 삼포왜란 등으로 인해 진관체제의 한계가 노출되자 이는 중앙의 지휘관이 소집된 각 지방의 병력을 지휘하는 형태인 제승방략 체제(을묘왜변 계기)로 바뀜.

5. 임진왜란중 제승방략 체제 역시 취약점을 드러내었고, 류성룡의 건의로 진관체제로 다시 바꿈. 이로 인해 조선 후기부터는 중앙군으로는 전문적인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왜란중 류성룡의 건의)을 비롯한 5군영 설치. 지방군으로는 양반부터 노비(천민)까지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지방의 자체 방어병력인 속오군(왜란 중 류성룡의 건의) 설치. □□

4 (가), (나)의 특징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배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족신을 신는다.
 (나) 부여의 별종(別種)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이 다르다.
 - [삼국지]위서동이전 -

- ① (가) -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② (나) -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③ (가)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④ (나) -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정답 ③

문제해설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

③ 부여의 법은 엄격하여 살인자는 죽이고 그 가족을 노예로 삼았으며, 도둑질한 경우에는 훔친 물건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또한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는 경우에는 죽이고 그 시신을 남산에 버리도록 하였다.

오답해설

① 옥저. ② 삼한 중 마한 ④ 동예. □

5 다음 글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가)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
 (나) 대견원기고려왕서(代甄元寄高麗王書)
 (다) 낭원대사오진탑비명(朗圓大師悟眞塔碑銘)

- ① 골품제를 비판하고 호족 억압을 주장하였다.
 ② 국립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에서 공부하였다.
 ③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왕조에서도 벼슬하였다.
 ④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였다.

정답 ④

문제해설

(가)최치원(857~?), (나)최승우(?~?): 견훤의 책사 (다)최언위(868~944): 궁예의 책사.

④ 이들은 모두 신라 하대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 공통적으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한 인물들. 이는 신라 내에서는 골품제로 인해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를 통틀어 '신라삼최'라고도 함.

오답노트

① 신라 하대의 육두품 지식인들은 골품제를 비판하였으나 호족들의 억압을 주장하지는 않음. 오히려 골품제 타파를 목적으로 신라를 떠나 새로이 흥기하는 유력한 호족세력과 연합하여 반 신라세력을 형성함.

② 신라 중대 신문왕때 국학. 경덕왕때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태학감. 해공왕때 다시 국학으로 환원. 당나라의 국립대학은 국가 감으로 태학으로 불리기도 함. 태학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설치. 신라 중대에는 국학에서 육두품 출신이 교육받았을 것으로 추측됨. 그러나 하대에 이르면 진골 귀족들의 반발이나 당나라 유학의 성행 등으로 인해 이미 크게 쇠퇴하였을 것으로 봄.

③ 최연위는 고려 왕조에서 벼슬하였으나, 최승우의 경우는 후 백제의 견훤의 책사. 최치원은 신라 조정에서 제출한 시무책 10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은둔.

6 다음 밑줄 친 '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엔닌은 대사의 어진 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당나라에 머물러 왔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원하신 적산원(赤山院)에 머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경(感慶)한 마음을 달리 비교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당구법순례행기]

- ① 법화원을 건립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 ② 당나라에 가서 서주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 ③ 회역사, 견당매물사 등의 교역 사절을 파견하였다.
- ④ 웅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長安)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정답 ④

문제해설

제시문은 일본 승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기. '대사'는 신라의 청해진 대사 장보고(?~846)를 말한다. 장보고는 중국 순례중, 법화원에서 신세를 진 엔닌에게 일본으로 돌아갈 배를 구해준 적이 있다.

④ 현덕왕 14년(822년) 일어났던 웅천주(공주) 도독 김헌창의 난에 대한 설명. 아버지 김주원이 원성왕에게 밀려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발! 장안국을 세움. 난 실패 후, 김헌창 집안 6두품으로 강등(족강일등의 사례). 현강왕때는 최치원 귀국.

오답해설

① 적산 법화원은 9세기경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교역거점이었던 산둥반도 일대에 장보고가 후원하여 세워진 사찰. 신라원 중 가장 큰 것으로 신라원을 대표하는 고유명사화 됨. 당시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신라방 내에 있었고 신라인들의 거점 역할.

② 장보고는 젊은 시절 당나라로 건너가 지방 절도사의 번진(藩鎭) 중 하나였던 서주의 무령군 소장이 됨. 당시 고구려 유장으로 당나라의 절도사를 지낸 이정기의 후원을 받음. 이후 그는 828년(흥덕왕 3) 신라로 귀국하여 해적 토벌을 위한 완도에 청해진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해진 대사가 되어 강력한 해상세력으로 발전.

③ 장보고가 일본에 회역사, 당나라에 견당매물사라는 무역사절단을 파견함. 무역선은 교관선이라고 함.

7 다음 (가)에서 이루어진 합의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통치체제로 옳은 것은?

호암사에는 (가) (이)라는 바위가 있다. 나라에서 장자 재상을 뽑을 때에 후보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가지고 와서 열어 보고 그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삼국유사]

- ㄱ. 중앙정치는 대대로를 비롯하여 10여 등급의 관리들이 나누어 맡았다.
- ㄴ. 중앙관청을 22개로 확대하고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정비하였다.
- ㄷ. 16품의 관등제를 시행하고, 품계에 따라 옷의 색을 구별하여 입도록 하였다.
- ㄹ. 지방 행정 조직을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 ㅁ. 중앙에 3성 6부를 두고, 정당성을 관장하는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정답 ②

문제해설

(가)는 정사암으로, 백제의 귀족합의제도.

ㄴ. 백제 성왕 대.

ㄷ. 백제는 260년(고이왕 27) 처음 관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관복 색깔을 정하였다고. 6좌평 16관등제, 3색 공복(자-비-청)제 채택. 다만 16등 관계가 완성된 형태가 된 것은 성왕 대라고 본다.

오답해설

- ㄱ. 고구려.
- ㄹ. 통일신라.
- ㅁ. 발해.당의 3성6부제 수용. 명칭과 운용에서 독자성 드러남.

8 다음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게서 걷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 ‘심서(心書)’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 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 ② 《농가집성》을 펴내 이양법 보급에 공헌하였다.
- ③ 홍역 관련 의서를 종합해 《마과회통》을 저술하였다.
- ④ 조선시대의 역사를 서술한 《열조통기》를 편찬하였다.

정답 ③

문제해설

제시문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의 《목민심서》.

- ③ 《마과회통》은 1798년(정조 22) 정약용에 의해 편찬되었다.

오답해설

- ① 숙종때 김석문은 역학도해(1697)를 통해 최초로 지전설 소개. 홍대용은 《의산문답》을 통해 지전설을 주장. 정약용도 지전설 주장, 이익은 지구 구체설까지만 주장.
- ② 《농가집성》은 1655년(효종 6) 신숙(1600~1661)에 의해 편찬. 이양법에 대해 긍정적.
- ④ 순암 안정복(1721~1791)에 대한 설명이다. 태조·영조까지의 통사.

9 (가)와 (나)의 인물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교(敎)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안의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선(禪)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잇고 안의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정(定)은 본체이고 혜(慧)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존재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가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 ㄱ.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 ㄴ. (가)와 (나)는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 ㄷ. (가)는 불교와 유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 ㄹ. (나)는 수선사 결성을 제창하여 불교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②

문제해설

(가)는 대각국사 의천(1055~1101), (나)는 보조국사 지눌(1158~1201).

ㄱ. 의천은 교관겸수(敎觀兼修)를 통해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 해동천태종 창시. 지눌은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여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

ㄹ.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을 통해 당대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신앙 결사운동을 통해 불교개혁운동. 이를 수선사결사운동이라고 함.

오답해설

ㄴ. 신라 하대 선종.

ㄷ. 지눌의 제자였던 진각국사 혜심(1178~1234). 최우는 자신의 아들을 혜심 밑에서 출가시킴. 최우의 적극 지원.

10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대외 무역이 발전하면서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으며, 대식국(大食國)으로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수은·향료·산호 등을 팔았다.

- ① 해동통보와 은병(銀甁)같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② 인구·토지면적 등을 기록한 장적(帳籍, 촌락문서)이 작성되었다.
- ③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개설해서 활동하였다.
- ④ 지방 장시의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뿐 아니라 숙박·창고·운송 업무까지 운영하였다.

정답 ①

문제해설

제시문에 보이는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고려 시기의 상황.

① 해동통보와 은병은 모두 고려 숙종 대부터 주조되었던 화폐. 고려 숙종은 대각국사 의천의 건의를 받아들여 1097년(숙종 2) 주전도감을 설치, 1101년(숙종 6) 은병 제작, 1102년(숙종 7) 해동통보를 주조, 유통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화폐정책을 시행. 유통은 실패/

오답해설

② 통일신라 시기의 민정문서(=촌락문서)에 대한 내용으로,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695년(효소왕 4), 755년(경덕왕 14), 815년(헌덕왕 7), 875년(헌강왕 1) 추정. 그중 695, 815가 유력.

③ 개성 송상, 의주 만상, 평양의 유상, 동래의 내상, 한강구역의 경강상인 등의 사상(私商)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것은 조선 후기.

④ 지방 장시가 발달하거나 객주, 여각 등이 성행한 것 역시 조선 후기 상품경제의 발달. 포구를 중심으로 성장한 객주와 여각은 상품 운송, 매매, 창고, 숙박 업무를 맡음.

11 조선시대 도성 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복궁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 ② 경복궁의 동쪽에 사직이, 서쪽에 종묘가 각각 배치되었다.
- ③ 유교사상인 인·의·예·지 덕목을 담아 도성 4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 ④ 도성 밖 10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정답 ②

문제해설

① 근정전의 '근정(勤政)'이란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잘 다스려진다는 의미로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이 지은 이름. 삼봉 정도전은 수도건설의 총책임자. 성문의 이름과, 한성부의 5부 52방의 이름도 지음. 정도전은 원래 지금의 연세대 위치를 궁궐로 정하자고 함.

③ 인·의·예·지 덕목에 따라 도성을 축조할 때 남쪽에 숭례문(崇禮門:지금의 서울 남대문), 북쪽에 숙정문(肅淸門), 동쪽에 흥인지문(興仁之門:지금의 서울 동대문), 서쪽에 돈의문(敦義門), 중앙에 보신각(普信閣)을 세웠다. 본래 숙정문(=숙정문)에는 '지(智)'가 들어가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智)' 대신 '청(淸)'을 사용.

④ 수도(한성부)의 범위는 도성 밖 10리까지. 도성 밖 10리까지는 경관과 산림 보호를 위해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오답해설

② 중국 고대, 도성의 주요 시설을 배치하는 원칙 중 하나인 '좌묘우사'의 원칙에 따라 곡식과 토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직단은 왕의 우측, 즉 서쪽에 배치. 왕실의 사당에 해당하는 종묘는 그 좌측, 즉 왕의 동쪽에 배치. 경복궁은 주산인 북악산(백악산)아래에 위치. 내수인 청계천과 외수인 한강이 흐르는 형상.

12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신하들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 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 ②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4~6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 ③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곡 12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 ④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였다.

정답 ①

문제해설

'이 제도'는 세종 때 제정된 공법(貢法). 공법 체제 하에서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전분 6등법), 풍흉의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연분 9등법) 상상년~하하년에 따라 20두~4두를 수취. 세액은 연분9등에 의해서 결정.

① 공법의 실시 계기 중 하나는 답험손실법의 폐단으로, 공법에서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징수. 조선 건국 초의 세금제도는 토지의 등급을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년도의 작황에 따라 생산량의 1/10을 수취하는 답험손실법이 운영됨. 이 법은 관리를 해마다 파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국가의 조세수입도 일정치 않은 단점. 세종은 1430년 18만여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17년이라는 기간동안 검토를 거듭한 후 최종적으로 1444년 공법을 확정, 발표했다.

오답해설

② 인조 때 실시된 영정법(永定法). 영정법에서는 연분 9등급의 '하지하(下之下), 하지중(下之中)'년에 1결당 맞추어 4~6두를 징수하도록 하였다. 풍흉을 반영하지 않고 전세를 인하고정함.

③ 대동법에 대한 설명. 방납의 폐단이 심화되면서 공납제도는 호별, 현물납에서 광해군 이후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1결당 12두를 걷는 제도로 변화.

④ 공법 실시 이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 1결당 생산량을 300두로 상정하였으므로, 농민들은 1결당 30두를 납부. 즉, 조선 초기의 과전법에서는 토지 수확량의 1/10을 기준으로 1결마다 30말을 거두었으나, 답험손실법(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을 적용하여 손실에 비례하여 공제해 주도록 한 것임.

13 다음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옳은 것은?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호포(戶布)나 결포(結布)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1필을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1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 ① 지조법을 시행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 ② 토산물로 징수하던 공물을 쌀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통일하였다.
- ③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도록 권장하고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시행하였다.
- ④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정답 ④

문제해설

1. 조선 후기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 제기됨에 따라 영조 때 실시하게 된 균역법(均役法)=감포론, 감필론에 대한 설명.
2. ‘호포(戶布)’는 신분에 상관없이 호별로 군포를 납부하는 방법. 결포(結布)는 토지 결수에 따라 군포를 납부하는 양역변통론 중 하나.
3. 양반 지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고 군포를 1필로 감필하는 균역법(1750)이 최종적으로 채택.
4. 군포를 1필로 감함에 따라 부족한 세입 감소분은 결작, 은결 징수, 어염선세 등으로 보충. 일부 양반층이나 양인 상층에게 선무군관포(1필)를 징수한 것 또한 세입 보충 방안.

오답해설

- ① 갑신정변 당시 정변 세력이 제시한 「14개조 정강」의 내용이다.
- ② 대동법에 관한 내용. 본래 토산물(현물)로 징수하던 공납을 쌀로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미곡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무명, 동전 등으로도 가능.
- ③ 임란 이후 광해군이 실시한 전후 복구책. 균역법과 무관.

14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의 편제를 바꾸었다.
- ② 조선군은 명나라 지원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게 뺏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③ 전세가 불리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란이 끝났다.
- ④ 첨사 정발은 부산포에서, 도순변사 신립은 상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패배하였다.

정답 ④

문제해설

- ④ 1592. 4.14 침략 개시. 신립은 북상하는 왜군을 상주가 아닌 충주 달천강 탄금대에서 맞서다가 패배. 상주에서 일본군과 맞선 전투는 ‘북천 전투’. 상주 판관 권길과 호장 박걸, 종사관인 윤섬, 이경류, 박호 등의 경군과 사군도 찰방 김종무, 의병장 김준신 등 전사. 상주에서 순변사 이일이 가토 기요마사에게 패배 후 충주로 물러났고, 충주에서 도순변사 신립이 배수의 진!

오답해설

- ① 휴전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군제를 재편하여 훈련도감을 설치. 이후 왜군이 재침하는 정유재란 때 훈련도감의 군인들이 실전에 투입되어 왜군의 북진을 저지. 선조가 몽진 후 다시 돌아온 1593. 10월에 류성룡의 건의로 설치. 일본은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휴전회담 제의.
- ② 명이 지원한 원군과 합세하여 조선군은 평양성을 탈환.

※ 평양성 전투: 평양성을 탈환한 때까지 평양에서 일본군과 조선군 사이에 벌어졌던 네 차례의 전투. 좁은 의미로는 이여송(李汝松)이 이끄는 5만여 명군과 조선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1593년(선조 26) 1. 6~1.9의 전투만을 의미하기도 함.

- ③ 정유재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1598)함으로써 일본군은 철수. 1597 직산전투, 명량대첩이후 일본의 전세는 불리해짐. 철수하는 왜군과 벌인 마지막 해전이 이순신의 노량해전. 명나라 진린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이순신은 끝까지 싸워 장렬히 전사.

15 우리나라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후기에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기도 하였다.
- ② 조선 초기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다.
- ③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적보는 성종 7년에 간행된 □《문화류씨가정보》이다.
- ④ 조선시대에는 족보가 배우자를 구하거나 봉당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정답 ③

문제해설

- ① 조선 후기 발달된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여 신분 상승 시도.
- ② 조선 초기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의 차별 없이 모두 수록. 자녀를 연령순으로 기재.
- ④ 조선 시대의 족보는 통혼(通婚)과 봉당 구별의 자료로서 이용됨.

오답해설

- ③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로서, 성종 7년(1476)에 간행된 족보는 <안동권씨성화보>. □《문화류씨가정보》는 명종 20년(1565)년에 간행. □

16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 ① (가) -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② (나) -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③ (다) -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④ (라) -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정답 ③

문제해설

(가)는 8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제 5공화국 헌법(1981), (나)는 제헌헌법(1948), (다)는 사사오입 개헌(1954), (라)는 유신헌법(1972) 7차 개헌.

③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된 진보당 사건(1958)은 사사오입 개헌(1954) 이후의 일. 56년 대선때 조봉암이 평화통일론으로 약진하자, 이승만은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제거.

오답해설

- ① 91년 노태우 정부때로 현행 헌법(1987~) 하의 일. un가입국은 자동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됨.(ILO 91년 가입, 17 경찰1차 기출)
② 휴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 발체개헌(1952)이후.
④ 72. 7. 4 남북공동성명. 유신헌법 이전.

17 다음 자료가 조선 조정에 소개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합해(聯美) 자강을 도모하는 길 뿐이다.

- ①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해 서양의 새 학문을 교육했다.
②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③ 개화파가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④ 최익현은 일본과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五不可疏)》를 올렸다.

정답 ④

문제해설

제시문은 1880년(고종 17) 일본에 파견된 2차 수신사(修信使) 김홍집이 조선에 유입해 온 황준헌의 『조선책략(朝鮮策略)』.

④ 최익현의 『오 불가소』는 강화도조약(1876)이 체결되기 전 개항을 반대하여 고종에게 올린 상소. 『오 불가소』는 왜양일체를 주장하며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반대한 것. 개항 이후인 조선책략 유입 이전.

오답해설

- ① 육영공원 설립은 1886년.
② 임오군란은 1882년.
③ 갑신정변은 1884년.

1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정리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 ①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다.
②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
③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④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정답 ③

문제해설

제시문의 '삼균제도'를 주장한 인물은 조소앙(1887~1958).

- ① 조소앙은 1930년 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김구(金九)·안창호(安昌浩) 등과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창당.
② 조소앙은 임시정부헌법·의정원법(議政院法)의 기초위원과 심사위원을 거쳐 초대 국무원 비서장을 역임한 뒤 국무위원에 선임.
④ 조소앙은 인균(人均), 족균(族均), 국균(國均)의 삼균주의를 제창하였으며, 인균(人均)에 있어서는 정치·경제·교육을 균등히 할 것을 주장.

오답해설

③ 조소앙은 '남북협상'에 참여하기도 한 인물 제헌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음. 조봉암은 인천강화에서 당선. 남북협상의 실패 선언은 김구와 갈등, 한국독립당 탈당. 1948년 12월 사회당 창당. 1950년 5·30총선에 서울 성북구에서 출마하여 3만4000여 표로 전국최고득표자가 되어 제2대 국회에 진출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서울에서 강제 납북. 6.25 초기에 서울을 사수한 인물.

19 시대별 교육문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군정기 :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과 6-3-3학제가 도입되었다.
- ② 1950년대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되었다.
- ③ 1960년대 : 입시과열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추첨제가 도입되었다.
- ④ 1970년대 :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었다.

정답 ④

문제해설

- ① 미군정기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과 단선형 학제인 6-3-3학제가 도입.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도입. 이는 미국의 진보주의(실용주의) 교육철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의 영향을 받은 것.
- ② 한국의 의무교육은 1948년 헌법과 교육법으로 제정. 실질적인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1954~59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
- ③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도는 1969학년도부터 서울에서 시작. 1970학년도에는 10개 도시에서, 1971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오답해설

- ④ 국민교육헌장은 서울대 교수 박종홍에 의해 1968년에 반포. 김영삼 정부때 폐지.

2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①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 ②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 ③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④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답 ④

문제해설

제시문의 법령은 반민족행위 처벌법(반민법, 1948. 9. 22)이다.

- ①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두어 재판을 담당.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설치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함.
- ② 제헌헌법 제100조에서 반민족행위자들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제정.
- ③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따라 682건의 친일행위 조사, 영장 408부 발부, 검찰송치 559건, 221건이 기소됨. 조사받은 이 대부분 풀려남. 재판 종결은 38건, 14건 남짓한 실형이 선고. 그나마 이중 10명은 625전에 석방.

오답노트

- ④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여수·순천 사건(1948. 10. 19.) 직전인 1948년 9월 7일에 국회를 통과, 9월 22일 공포.

반민법의 최초제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미국의 반대로 미 실시.

참고: 노무현 정부의 반민족 친일행위 청산의 성과!

1. '8·15 광복' 60년을 맞은 2005년 12월 1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 제정. 친일파 이완용과 송병준 자손의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친일재산환수법을 태어나게 함. 을사오적(乙巳五賊:1905년 을사조약에 서명한 내각 대신 5명) 이완용의 후손은 1992년 시가로 30억원대인

서울 북아현동 대지(2372㎡)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97년 승소. 그는 곧장 이 땅을 팔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킴. 송병준의 자손도 3000억원 상당의 인천 부평의 미군기지 ‘캠프마켓’ 부지(36만5000㎡)가 자기 땅이라며 소송을 제기. 일제시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송병준이 우국지사 민영환 선생으로부터 빼앗은 토지”라고 함. 최종적으로 패소.

2. 정부는 ‘친일재산환수 조사위원회’(2006년 7월~2010년 7월)를 발족해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에 나섬. 40여 명의 조사관들이 조선총독부 관보·공문서를 토대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사람들을 1차로 정리. 이들의 본적 정보와 족보를 뒤져 후손 가계도를 작성.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의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조사위로 전화를 걸어 “친일파 명단에 우리 의원님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청탁한 일도 있음. 결혼해서 족보에서 사라진 여성, 북한에 본적을 둔 인물을 제외해 나가다 보니 454명→441명→168명으로 압축.

3. 이들이 후손에게 상속한 부동산 2359필지(1113만9645㎡)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가 시작됨. 조사관들이 전국으로 퍼져 답사 실시. 비옥한 전답은 이미 팔아 현금화한 경우가 많아 남은 건 대부분 임야.

그나마도 후손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라고 주장해 조사관 3명이 하루 종일 산을 뒤지며 실제 조상 묘가 있는지를 조사한 적도 있음. 전라남도 지주 친일파인 김윤수의 땅 1500필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일주일간 전북 고창의 여관에서 숙식. 그렇게 고생 끝에 1000억원대 땅을 국고로 환수하는 성과.

‘을사오적’ 재산 얼마나 환수했나

대상자	환수 재산
외부대신 박제순	없음
내부대신 이지용	16만9000원 (1필지)
군부대신 이근택	1539만원 (9필지)
학부대신 이완용	6961만원 (16필지)
농상부대신 권중현	3652만원 (10필지)

자료: 친일재산조사위 백서, 환수 결정 당시(2006~2010년) 공시지가 기준, 권중현만 시가

4. 조사위 활동이 2010년 막을 내리자 후손들과의 ‘소송 전쟁’이 시작됨. 2006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행정소송 92건, 국가소송 22건, 헌법소원 9건 등 123건의 소송이 진행. 친일파 후손들은 하나같이 법정에서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한 친일파의 후손의 경우 2008년부터 행정·민사 소송을 5건 제기했고 모두 대법원까지 상고. 2010년 300억원대의 서울 은평구 땅과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특별법상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 조항을 이유로 이 후손의 손을 들어줌. 작위를 받은 것만으로 한·일 합병의 공이 입증된 건 아니라는 논리. 그러자 국회는 해당 조항에서 ‘한·일 합병의 공’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했고, 2014년 항소심에서 이 후손은 패소.

5. 민영휘·이정로·고홍겸 자손 등이 친일재산환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

소는 2013년 “친일 재산은 일제 투쟁과 극복으로 탄생한 우리 헌법의 법통, 정신을 고려할 때 헌법상 재산권 조항으로 보호할 수 없다”며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림. 이후 소송에서 정

부는 대부분 승소.

6. 광복 이후 세월이 흘러 자료가 사라졌고 ‘을사오적’ ‘정미칠적’(丁未七賊·1907년 한·일 신협약 조인에 찬성한 송병준 등 내각 대신 7명) 등의 대표적 친일파들은 제3자에게 땅을 처분해 환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 이완용은 1925년 당시 재산이 300만원(현재 시가로 600억원)에 달함. 보유한 땅은 1572만 9167㎡로 조사위의 전체 국고 귀속 면적보다 넓음. 그러나 후손들에게 상속된 재산은 거의 없어 6961만원밖에 환수하지 못함. 일제가 토지조사를 한 1913~19년 일본인 4명에게 땅을 팔아 현금화했기 때문.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사위 스스로도 “과거사를 청산했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는 미완의 청산”이라고 아쉬운 자평.

7.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도 국고로 환수할 수 없었음. 특별법 발효 이후인 2008년 친일파에게 땅을 사들인 제3자 박모(57)씨가 낸 소송의 1심에서 조사위는 “국고 반환은 불가”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임. 조사위는 대법원에 비약 상고를 했지만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패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은 환수하지 못한다”는 이유. 친일파 후손과의 법정 분쟁에서 정부는 행정소송 3건 패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승소. 친일 재산 환수의 역사는 이해승의 후손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마지막으로 완료됨.